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 28.(수) 11:00 (지면) 2026. 1. 29.(목) 조간 배포 2026. 1. 28.(수) 06:00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 해양수산부, 해운선사, 물류업계 및 유관기관 등 36개 업·단체, 기관 참여
-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활성화 지원, 업계 애로사항 발굴·해소 추진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목)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 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북극항로추진본부	책임자	과 장	전준철 (051-773-6320)
	북극항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우열 (051-773-6321)

참고

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해수부, 해진공, 해운선사, 물류업계 및 북극항로 관련 유관기관 등

< 협의회 참여기관 및 업·단체 >

구분	기관 및 업·단체	역 할
부처	해양수산부	협의회 주관, 북극항로 정책 총괄
간사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협의회 운영, 북극항로 진흥
물류업계	포스코, 석유공사, 가스공사, 남부발전, 삼성전자로지텍, 현대코퍼레이션, 태웅로직스 등	북극항로 운송 화물
해운선사	글로벌비스,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동방, HMM, 장금상선 등	실증운항 및 상업항로화
유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한국선급, 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책지원 및 연구, 국제협력
기타	현대해상,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 P&I), 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 등	특화보험, 극지운항 선박 기술 등